

서노송예술촌 대변신, 전국 '주목'

현재까지 지자체·정치권·단체 등 125개 기관 1245명 현장시청 찾아

최근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 마을로 변신한 전주 서노송예술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여성단체 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9일 13만 경향을 이끄는 수장인 김창룡 경찰청장이 문화예술·여성인권의 공간으로 거듭난 서노송예술촌을 방문하고, 지난 8일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차장은 지방정부 위원장이 여성인권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 대표적이다. 서노송예술촌은 전주역 앞 대로를 사탄·생태·문화가 있는 길로 만든 첫마중길, 폐공장을 문화예술공간이자 예술교육거점으로 탈바꿈시킨 팔복예술공장과 함께 전주형 문화재생사업의 핵심으로 손꼽히면서 우수사례를 배우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성공적인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미촌 내에 마련된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을 찾은 기관·단체·개인은 125개 기관, 1,245명에 달한다. 이는 전주시가 과거의 공권력을 동원한 불도저식 성매매 집결지 정비가 아닌 점진적 문화재생사업방식을 선택했음에도 지난 2000년대 초반 85곳에 달했던 선미

촌 내 성매매업소를 현재 7곳으로 줄여들었다 때문이다. 성매매업소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범죄 발생건수와 112 신고접수도 덩달아 감소했다.

지자체로는 ▲서울 영등포구청 ▲부산시청 ▲경기 화성시 ▲서울 중구청 ▲수원시 ▲평택시 ▲천안시 ▲서울 성북구 ▲청주시 ▲경기 남양주시 ▲원주시 등이 전주형 문화재생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노송예술촌을 다녀갔다. 또 경기도 화성 도시공사장과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서울집수리센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5급 승진사 과정 교육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서울라이트축제 정책자문단도 이곳을 방문했다.

정부·정치권에서도 8일 방문한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정현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김우영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여수시의회, 경기도의회, 목민관클럽 지방정부 보좌진, 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보좌진 등이 서노송예술촌의 변화를 확인했다.

▲전국연대상담소 ▲서울 쓰나미의 집(반성매매단체)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아시아센터트레이너양성반 ▲민달팽이주택조합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스마트관광협회 ▲한국출판인협회 ▲한국술도시본부 등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매매집결지 정비와 여성인권 향상 등을 위한 사례학습을 위해 이곳을 다녀갔다.

이외에도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협업을 위해 방문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완산경찰서장, 전북경찰청 관계자 등이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을 찾았으며, 전북대와 한림대, 고려대의 교수와 학생들도 사례학습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서노송예술촌을 주요 무대로 활동하는 여성단체와 사회단체, 예술가단체 등을 개별 방문하는 외부 단체들도 많은 만큼 실제 방문자는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선미촌의 변화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주민들과 문화예술가들의 협력, 여성인권이 라는 관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선미촌 2.0 문화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해 모두가 찾고 싶은 가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학대 피해아동 신속·체계적 의료지원 협력

전주시·전북대병원·대자이병원·예수병원·전주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

전주시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9일 학대 피해아동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과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순), 대자이병원(대표 이병관), 전주병원(병원장 태형진) 등 4곳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체계가 구축돼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협약을 통해 전담의료기관들은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검진·치료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활동



전주시는 9일 학대 피해아동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과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순), 대자이병원(대표 이병관), 전주병원(병원장 태형진) 등 4곳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학대 피해아동의 의료지원 요청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게 따뜻한 돌봄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장애인 체육시설 활성화 '맞손'

전주시시설공단·가천대 운동재활융합연구소 업무협약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소장 이은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전주시 송촌동 소재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의 운영 프로그램과 시설 활용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 장애인 체육시설·프

로그램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개발에 대한 협력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분석에 대한 협력 ▲추진사업 효과 분석 및 결과 공유 등이 이번 협약의 골자다.

가천대 운동재활융합연구소는 운동소외계층의 신체활동 참여 확산을 통한 건강회복 및 운동 재활의 가치구현

을 위해 4차 산업 관련 운동, 재활, 건강 분야 융합연구 등을 주요 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어울림체육센터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용하는 체육관으로, 장애인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하지만 장애인 미 이용시간에 일반인도 클럽(유료)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백순기 이사장은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어울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울림체육센터가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장애인 체육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 예술 거점시설 조성 본격 추진

행복플러스센터·창작레지던시 플라자·상생협력상가 등 예술분야 거점공간 확충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에서 예술 분야 거점시설 조성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올해 서학동 예술마을에 ▲행복플러스센터 ▲창작레지던시 플라자 ▲상생협력상가 ▲예술테마거리 등 예술 분야 거점공간을 대거 확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행복플러스센터의 경우 오는 9월까지 지상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민협의회 회의실과 배움터 등 주민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예술인들을 위한 공동 창작공간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주거공간인 창작레지던시 플라자도 오는 6월 구축한다.

주거공간은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

오는 9월 3층 규모로 짓는 상생협력

상가는 공동작업장과 공방 전시체험 및 판매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한다.

시는 서학로와 서학3길 약 620m 구간은 예술테마거리로 조성한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길거리미술품관을 만들어 전통성당부터 짜잔다리, 서학동 예술마을에 이르기까지 한옥마을 관광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 172억원이 투입되는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집수리 지원 ▲주차장 조성 ▲포괄적 정비 ▲근린생활화로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집수리 사업의 경우 다음 달 60여 가구를 추가 선정해 담장, 대문, 외부새시, 옥상 방수 등을 지원한다. 올

11월까지 총 150가구의 수리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또 초록바위 밀 공영주차장(27면)을 비롯한 소규모 주차장 3개소를 설치하고, 우·오수 분리사업과 보도 재포장, 경관조명 설치, 화단 조성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상택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서학동 예술마을의 잠재된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도시재생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주민에게는 높은 주거 만족도를,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 활성화를 지원해 살기 좋은 마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12개 동 대상 마을계획 활성화 사업 추진

전주시가 마을환경 정화, 둘레길 정비, 음악회 개최 등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 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해 중화산2동과 풍남동 등 총 12개 동을 대상으로 '2021 전주시 마을계획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7년차를 맞은 마을계획 활성화 사업은 동별 마을계획추진단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총회를 통해 의제로 발굴해 직접 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마을 활동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에 목적이 있다.

이번 마을계획 활성화 사업은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에 3개 동이, 기존에 수립한 마을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에 9개 동이 참여한다.

마을계획 수립사업은 ▲복지·환경 등 분야별 특성을 살려 주민이 주체가 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중화산2동) ▲생활문화 동호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사업(효자3동)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이 안전한 아중마을 만들기(인후3동) 등이 있다. 각 동 마을계획 추진단에는 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마을계획 실행사업으로는 ▲마을이야기 책자 제작(풍남동) ▲천사마을 스토리 경관 조성(노송동) ▲유휴 시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철쭉정원 조성

(완산동) ▲산성천 주변 환경개선(동서학동) ▲마을 책 발간(서서학동) ▲정원 및 둘레길 정비(서신동) ▲책 사랑방과 마을작가재 장터 운영(인후2동) ▲가련산 둘레길 조성(덕진동) ▲가로환경 개선(금인2동) 등이 포함됐다. 이들 9개 사업 추진단에는 작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시는 마을계획 활성화 사업에 보다 다양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 이해교육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 활동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상택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앞으로도 마을공동체가 유지되고 많은 주민들과 더불어 상생하는 마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